지역 민생안정 대책반 본격 가동

정헌율 익산시장 "대통령 탄핵 의결에 따른 상황 대비·시민 생활 안정화 최선 다 할것"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과 경제 불황 속에서 모두 한마음으로 골목 상권 소비에 함께 힘써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16일 민생안정을 위한 긴급 회의를 열고 "연말연시 특수를 누릴 시기임에도 탄핵정국 여파로 골목 상권이 얼어붙어있다"면서 "대통령 탄핵 의결에 따른 혼란 상황에 대비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산시는 '지역 민생안정 대책반'을 가동해 움츠러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 생활 안정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시는 7개 부서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지역 민생안정 대책반'을 구성했다. 대책반은 강영석 부시장을 반장으로 △안전관리 △지역경제 △복지지원 △가축전염병대응 △비상진료 등 5개 팀으로 나눠 저마다 역할을 수행하게된다.

우선 시는 내년에도 지역사랑상품권인 '다이로움'의 혜택을 연중 이어가고, 20% 혜택이 주어지는 다이로움 정책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규모를 125억 원 이상으로 확대 공급하고 계획된 연말 행사를 취소 없이 예정대로 진행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누수없는 행정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정헌율 시장은 "송년회 같은 모임들이 대거 취소돼 자영업자들이 매우 어려운 실정인만큼 시민의 힘을 모아 어려움을 헤쳐나가자"며 "혼란한 시기를 맞아 여느 때보다 추운 겨울이지만 민생안정 대책을 책임감있게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이후부터 보건소 비상대책상황반을 운영해 응급실 24시간 운영체계를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급격히 추워지는 날씨에 대비해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지원과 피해 예방 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강임준 군산시장, 빠른 민생경제 회복 '총력'

탄핵 정국에 따른 연말연시 특수 사라져… 실질적 대책 마련 강조

강임준 군산시장은 16일 간부회의에서 탄핵 소추안 가결은 위대한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다만 탄핵정국 여파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하여 모든 부서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갑작스런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연말 단체회식과 숙박예약 취소 등 소상공인들의 연말 특수가 사라진 현 상황을 전 부서는 심각하게 인식하고, 모든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지금 바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강 시장은 "이런 시기일수록 민생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며 의회와 협력하여 소상공인 내수진작 및 소비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예비비 투입, 생활물가 상시 모니터링, 지방 공공요금 동결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발굴하고, 내년도 군산사랑상품권의 추가 발행을 위한 예산 증액 논의도 진행하여, "시민들이 어려운 연말을 잘 마무리 지을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안전한 도시 환경 구축 '박차'

'다이로움 스마트 빌리지' 사업 추진 위해 국비 5억6000만원 확보

익산시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안전한 도시 환경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한 '2025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선정돼 국비 5억 6,000만 원을 확보하고, '다이로움 스마트 안전빌리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다이로움 스마트 안전빌리지'는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익산안심이앱 △인공지능(AI)기반 고속 영상 검색 △지능형 선별 관제 등 첨단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시는 국비 5억6,000만원과 시비 2억 4,000만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익산안심이앱'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위급상황을 알리면 현재 위치가 익산시 CCTV통합관제센터와 보호자에게 자동 전송되는 안심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안심비상벨, 지구대, 안심택배함 등 안심시설물의 위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인공지능기반 고속 영상 검색 시스템'은 인상착의와 사진 등의 정보를 활용해 대상자의 이동 경로와 위치를 실시간에 가깝게 추적할 수 있다. 이에 치매환자나 아동 실종 시 신속한 발견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은 인공지능으로 객체를 인식하고 분석해 화재, 쓰러짐, 침입 등 사건사고 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감지한다. 해당 영상을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표출해 위급 상황을 관제요원이 모니터링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특히 취약계층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복지분야 '국무총리상' 수상

기초생활·긴급복지 사업 추진… 사회 안전망 구축 성과 '인정'

익산시가 적극적인 복지사업 추진으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기초생활보장분야' 평가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분야 포상은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사업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명예로운 상이다.

각 지자체 △신규수급자 발굴률 △기초생활보장 예산집행 실적 △행복이(e)음 변동알림 처리실적 △긴급복지 추진 실적 △긴급복지 처리 신속성 △교육실적 등을 평가기준으로 한다.

익산시는 △신규수급자 3,622세대 발굴 △복지예산 집행률 99.1% △변동알림 처리율 99%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권익 증진에 힘썼다. 또한 빈틈없는 긴급복지 지원으로 위기가구 해소·완화에 기여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7명 선발

개인부문 최우수 - 권영 주무관 · 우수 - 김지현 주무관

16일 군산시는 적극 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2024년 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공무원 7명(개인 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1명팀 4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규제혁신 △경제 활성화 △민원 갈등 해결 △창의적·선제적 정책 발굴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성과를 낸 우수사례 14건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심사는 △국민(직원) 체감도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 △사례의 중요도 △확산 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했고, '군산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마쳤다.

먼저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정보통신과 권영 주무관(최우수) △자원순환과 김지현 주무관(우수) △안전총괄과 문상직 방재시설관리계장(장려), 팀 부문 △산업혁신과 김성수 산단관리계장, 농정과 장판영 농촌활력계장(최우수) △수산식품정책과 손정성 수산식품산업계장, 공길후 주무관(우수)이 선정됐다.

개인 부문 최우수상 정보통신과 권영 주무관은 서무업무 참고 누리집 '서무실록'을 마련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급격한 공직 세대교체로 인한 행정 경험 전수 부족의 어려움 속에서도 업무 매뉴얼을 통해 정보 전달의 새로운 방식과 온라인 행정업무 협업 가능성을 보였다고 전했다.

우수상에는 자원순환과 김지현 주무관이 선정되었다. 김 주무관은 폐자원에너지회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에서 REC 판매 수입 항목을 확인하고 전용 계좌를 개설해 타 부서 소관 REC 까지 판매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올해 총 11억 원의 세외수입을 처리할 수 있었다.

안전총괄과 문상직 방재시설관리계장은 구암지구의 폭우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기관 간 협업을 통하여 노후화된 농업용 폐수문을 방재시설로 전환했다. 이렇게 기존의 인프라를 재활용하여 저비용·고효율 침수피해 저감 시설을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아 장려상을 수상했다.

협업팀 부문 최우수상은 성산면 산곡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를 함께 한 산업혁신과 김성수 산단관리계장, 농정과 장판영 농촌활력계장에게 돌아갔다.

두 사람은 농촌 마을에 우드칩 공장을 운영하려는 업체와 지역 주민들 간의 지속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환상적인 팀워크를 선보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먼저 관련 부서 간 협업으로 국민권익위의 중재를 통해 주민과 업체 간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환경시설을 정비하여 마을공원과 귀농·귀촌 임시주거시설 조성 방안까지 마련해냈다.

수산식품정책과 손정성 수산식품산업계장, 공길후 주무관이 협업팀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이들은 새만금 수산식품단지 조성을 위해 지역 영세기업에 대한 입주심사 완화와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제시를 반영해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12개 수산식품기업의 입주가 확정되었으며 약 1,700억 원의 투자와 400여 명의 직접고용을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인정받았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한국철도공사 함열역 2028년 신축 예정

익산시가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함열역을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시는 한국철도공사와 함열읍 이전 신축을 위한 부지 교환을 추진하고, 기존 함열역 부지에 교통연계시설을 조성해 북부권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철도공사는 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해 함열역 신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익산시는 함열역 신축과 관련해 철도교통 이용 접근성과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와 토지교환을 통한 역사 이전 신축 협의를 진행해 왔다.

시는 지난달 익산시의회에서 부지교환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면서 철도공사와 부지 교환에 속도를 내고, 기존 함열역 부지는 지간선제 시내버스 환승장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한국철도공사는 2025년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이전 부지에 지상 3층 규모의 함역열을 신축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24일 귀농귀촌인과 함께 하는 담소나눔 행사

군산시 농촌지원과가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담소나눔 행사를 오는 24일에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융합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동아리 학습활동의 마지막 과정이다.

먼저 24일부터 군산시청 2층 시민갤러리에서는 주민과 귀농귀촌인이 만든 유화와 압화 작품이 전시되며, 오후 두시에는 꽃차와 커피를 시음 할 수 있는 귀농·귀촌인과 함께하는 담소나눔 행사가 열린다.

군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매년 다양한 융화프로그램을 열어왔다.

지난해는 유화 그리기가 진행됐으며, 2024년은 압화, 꽃차, 커피 동아리 학습 활동이 펼쳐졌다.

/군산=이재춘 기자